# 국내
# 마감시황

2026. 6. 25.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반도체 투자 심리 개선되며 상승

마이크론 호실적 발표 및 반도체 공급 부족 지속 전망
반도체 이익 지속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되며 반도체 BIG2 강세

### 주요 지표 일간 변동

| KOSPI | KOSDAQ | KOSPI200 |
|---|---|---|
| 8,930.30pt (+5.42%) | 887.81pt (-2.36%) | 1,454.15pt (+6.17%) |
| **달러-원 환율** | **韓 10년물 국채 금리** | **S&P500 선물** |
| 1,542.00 원 (-0.7 원) | 4.1310% (-4bp) | 7,482.75pt (+0.73%) |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 주요 수급 동향

| | KOSPI | KOSDAQ | KOSPI200 선물 |
|---|---|---|---|
| 개인 | -24,155 억 | +1,478 억 | +8,202 억 |
| 외국인 | -8,782 억 | +321 억 | -28,380 억 |
| 기관 | +33,243 억 | -1,707 억 | +18,922 억 |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 KEY DRIVER

- 금일 코스피는 메모리 반도체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상승했습니다. 한국 증시 개장 전 공개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이크론은 향후 매출의 절반 이상이 장기 계약 성격인 전략고객협약(SCA)에서 나올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반도체 이익 성장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으나, 수급이 반도체 대표주로 몰리면서 코스닥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KOSPI는 5.42% 올랐고, KOSDAQ은 2.36% 내렸습니다. KOSPI 거래대금은 약 50.4조원, KOSDAQ은 약 7.0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8천억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IT서비스와 화학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금속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를 3.3조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 장비/부품과 기계/장비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한 반면, 반도체 소부장주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증시 활황이 지속되며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내수 소비 성장 전망에 백화점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2차전지, 조선, 방산주가 하락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SK하이닉스(+13.06%), 키움증권(+7.48%), 삼성전자(+5.29%)가 올랐고, 현대로템(-6.39%), 에코프로비엠(-5.57%), LG에너지솔루션(-3.69%)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